

물 오른 광주시청 한정미, 육상 400m '적수가 없네'

용인 전국실업육상 챔피언십 우승 올해 들어 일취월장 '시즌 4관왕' 부상 복귀 김국영 100m서 3위

광주시청 한정미(27)가 올시즌 최고 기량으로 400m를 석권하고 있다. 한정미는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용인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 여자 400m에서 우승했다.

56초42를 찍은 한정미는 김초은(김포시청·57초68)을 멀찍이 밀어내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한정미는 올 시즌 여자 400m 4관왕에 올랐다.

제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와 2023 예천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제77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이은 시즌 4번째 우승이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한정미가 동계훈련을 치열하게 한 결과가 성적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남자 100m 최고기록(10초07) 보유자 김국영(32)도 부활을 신고했다.

김국영은 이날 남자 100m에서 10초43으로 이준혁(안산시청·10초353)과 이규형(국군체육부대·10초357)에 이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기록은 10초43으로 평소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재할 후 첫 실전을 소화하며 복귀를 신고했다. 김국영은 오는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 400m계주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광주시청 김명하(23)는 남자 멀리뛰기에서 7m 32로 3위, 광주시청 노현진(34)은 여자 5000m에서 17분50초46으로 5위를 기록했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한정미가 상위권 선수들이 겨루는 이번대회에서도 변함없는 실력을 선보였다"며 "김국영은 부상 이후 첫 출전한 대회에



2023 용인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 여자 400m에서 우승한 한정미.(오른쪽 두번째) <광주시청 육상팀 제공>

서 페이스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대회에 출전하는 등 아시아게임 전까지 최고의 몸상태를 유지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FL 챔피언십은 한국실업육상연맹이 한국 육상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KTFL 시리즈 대회의 최종 결정전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열렸

다.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고 경기도육상연맹과 용인시육상연맹이 주관했으며 올해 익산과 예천, 나주에서 열린 KTFL 시리즈 대회와 제51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상위권에 올라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가 참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내년 영광 전남체육대회 성공 개최 준비 나서

전남도체육회, 운영평가회

전남도체육회가 내년 전남체육 대회 준비에 나섰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사진 가운데)는 최근 영광 법성면커뮤니티센터에서 도내 22개 시·군 체육회와 23개 회원종목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전남체육대회 운영평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완도에서 열린 전남체육대회를 평가하고, 내년 영광에서 열린 제63회 전남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 점검,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도체육회는 시·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전남도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8월 중 전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하고 9월 중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 지정·예고할 계획이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200만 전남도민의 화합무대인 전남체육대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융합·발전하는 스포츠 선진화 대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선 방안과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안세영, 코리아오픈 2년 연속 제패

타이프링 2-0 완파...올해 국제대회 6번째 우승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2년 연속 제패했다.

안세영은 23일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4위 타이프링(대만)을 2-0(21-9 21-15)으로 제압했다.

지난해 대회에서 7년 만에 여자 단식 우승컵을 한국으로 가져왔던 안세영은 올해에도 우승에 성공했다.

한국 선수의 여자 단식 2연패는 1993년, 1994년에 우승한 방수현 이후 29년 만이다. 방수현은 1996년에도 우승했다.

2연패 자체는 2000년, 2001년에 우승한 카밀라 마르틴(덴마크) 이후 22년 만이다.

이로써 안세영은 올해 국제대회에서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은 1세트부터 타이프링을 앞뒤로 흔들며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갔다.

1-1로 맞선 초반에 안-아웃 쉐클링에 성공하는 등 전반보다 코트 적응이 완벽해진 모습이었다.

안세영이 5연속 득점으로 10-3으로 달아나자 타이프링은 연거푸 범실을 내며 자멸했다.

승기를 잡은 안세영은 2세트에서 여유가 느껴질 정도였다. 안세영은 10-5에서 과감한 대각 공격을 성공시켜 여유 있게 휴식 시간을 맞았다.

12-5에서는 셔플록이 머리 뒤 왼쪽으로 날아가자 빙글 돌면서 손목 힘을 이용해 백핸드로 받아냈다.

잠시 추격을 허용한 20-15, 안세영은 강력한 푸시 공격으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경기가 38분 만에 끝난 압승이었다. 타이프링과의 상대 전적은 7승 2패로 늘었다.

세계랭킹 3위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은 이날 여자복식 결승전에서 세계 1위 천칭천-자이판(중국)에게 1-2(10-21 21-17 7-21)로 패했다. /연합뉴스



안세영이 23일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결승에서 타이프링을 꺾고 우승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요넥스 제공>



2022년 제44회 광주전남등산학교 단체사진. <광주·전남등산학교 제공>

제45회 광주·전남 등산학교 26~30일 열어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 일원서

제45회 광주·전남 등산학교(교장 정득재)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 동안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의 초도량마 등정 30주년이 되는 해로 더욱 의미 깊다.

사단법인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과 광주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영암군청,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의 후원으로 열리는 등산학교는 등산에 관심 있는 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일반과정과 광주·전남 등산학교 수료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도자 과정으로 나뉜다.

교육은 26일 오후 영암 인공암벽 등반 경기장에서의 개교식과 함께 시작된다.

교육기간 동안 일반과정과 전문가 과정 공동으로 등산개론 등의 알파니즘과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비롯해 독도법, 장비사용법, 확보물 설치, 암벽이론 및 실기, 확보물 설치 및 장비 매듭법 등의 과정 등이 진행된다.

또,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월출산 일대를 중추하는 종합등반을 통해 전반적인 실습을 마무리하며 월출산 주변 환경정화 봉사활동도 함께 할 계획이다.

정득재 광주·전남등산학교교장은 "1979년 8월 문을 연 지리산 피아골의 '산간학교'가 어느덧 45해째를 맞이하며 광주·전남지역 산악 인제 양성학교로 자리잡게 됐다"면서 "입교생 모두가 학생산악연맹 이름에 걸맞은 산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엘리멘탈, 극장판 아름다운 그: 이터널
- 2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 3관 여름날 우리,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 4관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 5관 인시디어스: 빨간 문
- 6관 엘리멘탈
- 9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 7관 싸네커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더 섀
- 8관 싸네커블 바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즈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2023-08-26(토) 17: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